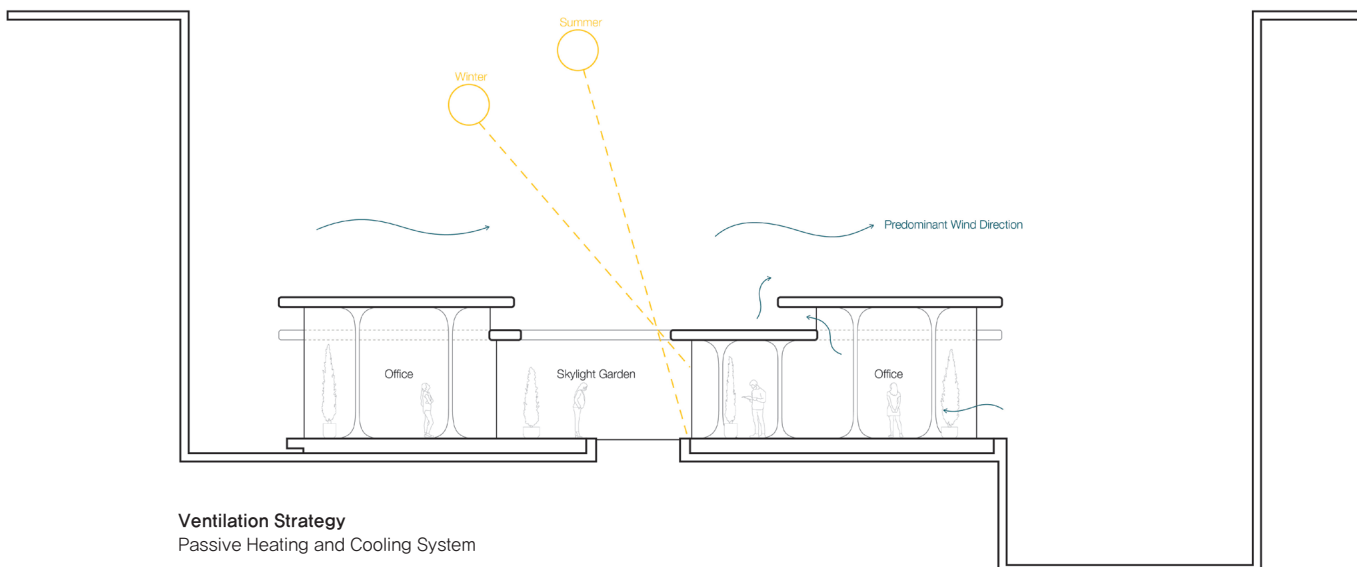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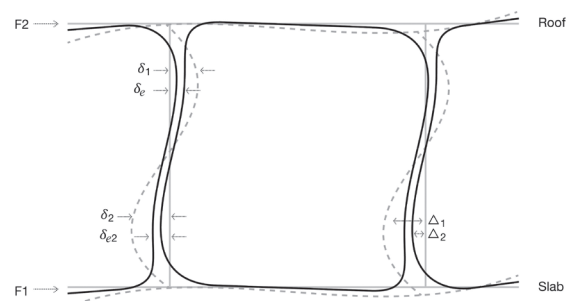
OFFICE

감염병의 확산으로 오피스 디자인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며 자유로운 업무 환경을 추구해왔으나 많은 인원이 모이는 특성상 위생과 안전이 주요한 가치로 등장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재택과 자율 근무제가 활성화되며 더욱 유연한 공간 패러다임이 요구되면서, 동시에 안전한 업무를 위한 개인과 공용 영역의 경계 짓기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니즈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오픈 플랜이 요구된다. 아울러 건강한 작업 환경을 형성하는 데 집중해 기본적인 채광과 환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도 원활히 대처하도록 구조적 솔루션을 확립한다.



Ecotone

터키 이스탄불의 대학 Yıldız Technical University 내에 계획된 Ecotone은 교육과 산업 현장을 잇는 복합적 오피스다. 지속 가능한 환기와 채광 시스템뿐 아니라 재난을 대비한 안전 구조, 공원을 거닐 듯 개방적으로 계획한 평면 등을 갖춰 오피스의 미래를 제안한다. 구조를 단순화한 건물은 외부를 투명한 유리로 감싸 평평한 지붕과 슬래브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된다. 기둥에는 가솔린 탱크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혁신적인 패브리케이션 기술이 적용됐는데, 이는 지붕 위의 물을 하단으로 보내는 배수관으로 역할 하며 저장한 물은 냉방을 위해 활용된다. 이 기둥이 석순과 종유석을 연상시키는 가느다란 형태로 녹아 내리듯 연출돼 지붕과 슬래브 사이를 독특하게 연결한다. 내추럴한 환경을 강조한 내부는 지붕 높낮이를 달리하고 옆면의 틈으로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곳곳에 정원을 만들거나 나무를 식재해 오피스에 녹색 에너지를 더했다. 이를 바탕으로 열린 영역을 극대화해 위생과 안전을 강화했는데, 중앙에 외부 정원을 만들고 이를 회의 구역으로 제안했으며 소규모 그룹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않도록 넉넉한 면적을 확보했다.



Structural Strategy
 Strengthening cloumn connections for Earthquake Resistance



▲ 사람과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다

원시 오두막에서 모티브를 얻어 낮고 단순한 지붕과 기둥이 반복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지역 내 강풍과 지진의 위험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이다. 아울러 인공적인 공조 시스템이 아니라 바람 방향에 따른 자연 환기, 자체적인 지열 난방과 냉방 등을 활용해 친환경 가치를 담았다.



높낮이를 각기 다르게 한 지붕 옆으로 자연 환기가 이뤄진다.



▲ 유기적으로 흐르는 구조

높고 넓은 공간에 유리로 전면을 개방하고 벽이나 파티션을 배제해 개방성을 최대화했다. 내외부가 모호한 독특한 레이아웃과 유동적인 자리 배치로 공간을 자유로이 점유할 수 있다.



기둥은 지붕을 지지하는 동시에 외부의 물을 아래로 모으는 관으로 역할 한다.